

코로나19와 이주 노동자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③ - 프랑스

이태훈 (스위스 제네바 국제개발대학원 개발경제학 박사과정)

■ 머리말

프랑스 내 전국적인 봉쇄령이 계속되는 가운데 2020년 11월 중순 파리 북부에 위치한 스타드 드 프랑스 축구장에 설치되어 있던 임시 텐트들이 강제 철거되며 이곳에 머물던 2,000여 명의 난민이 경찰 병력에 의해 퇴거조치되었다.¹⁾ 이들은 주로 아프가니스탄 출신으로 코로나 19에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시설로 격리되었으며 음성 판정을 받은 이들은 파리 주변 곳곳의 보호소로 이송되었다. 정부는 방역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하나 마스크를 구할 수조차 없는 난민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인 보건 위기의 여파는 난민을 비롯한 이민 노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가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들이 받은 충격과 이를 예방하고 완화하여 해결하기 위해 실시된 정책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 코로나19와 이민자들

OECD(2020)에 따르면, 지난 경제위기들을 돌이켜 볼 때 코로나19는 내국인과 이민자에게 동일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불평등의 상태를 건강상태에 대한 척도와

1) <https://www.france24.com/en/france/20201117-french-police-clear-more-than-2-000-people-from-makeshift-migrant-camp-near-pa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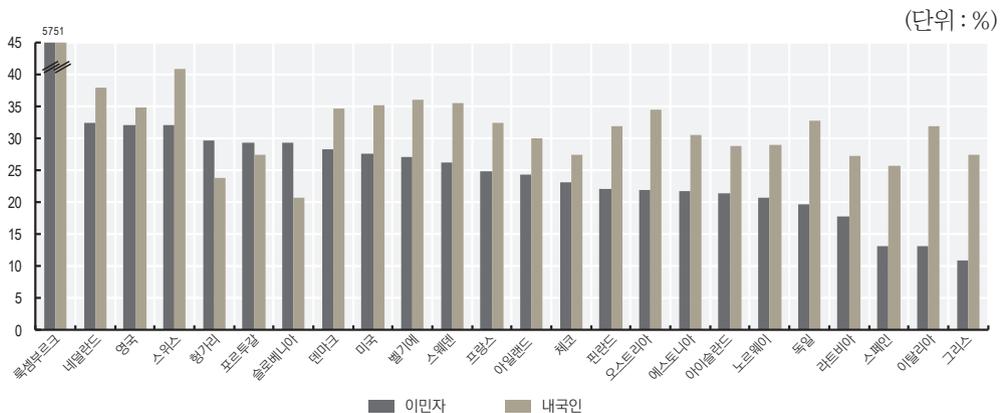
노동시장 성과를 통해 알아본다.²⁾

이민자의 초과사망률

이민자의 7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8%로 내국인 고령자 비율이 12%인 것에 비하면 평균적으로 젊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이 야기하는 건강문제를 덜 겪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이민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은 약 30%이며, 이는 내국인 취약계층 비율인 약 20%보다 더 높다. 그리고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은 만성질환을 앓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감염확률이 높은 열악한 조건의 거주지나 인구밀도가 높은 주거환경을 갖고 있기 쉽다.

업무환경 또한 이주 노동자들을 더욱 심각한 코로나19의 위험에 노출시킨다. OECD 회원국 4분의 3이상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이주 노동자의 비율은 내국인보다 5%p 낮게 나타났다(그림 1 참조). 프랑스의 경우, 32.5%의 내국인이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답한 반면 이민

[그림 1] 이민자와 내국인 중 재택근무가 가능한 임금노동자 비율



자료 : OECD(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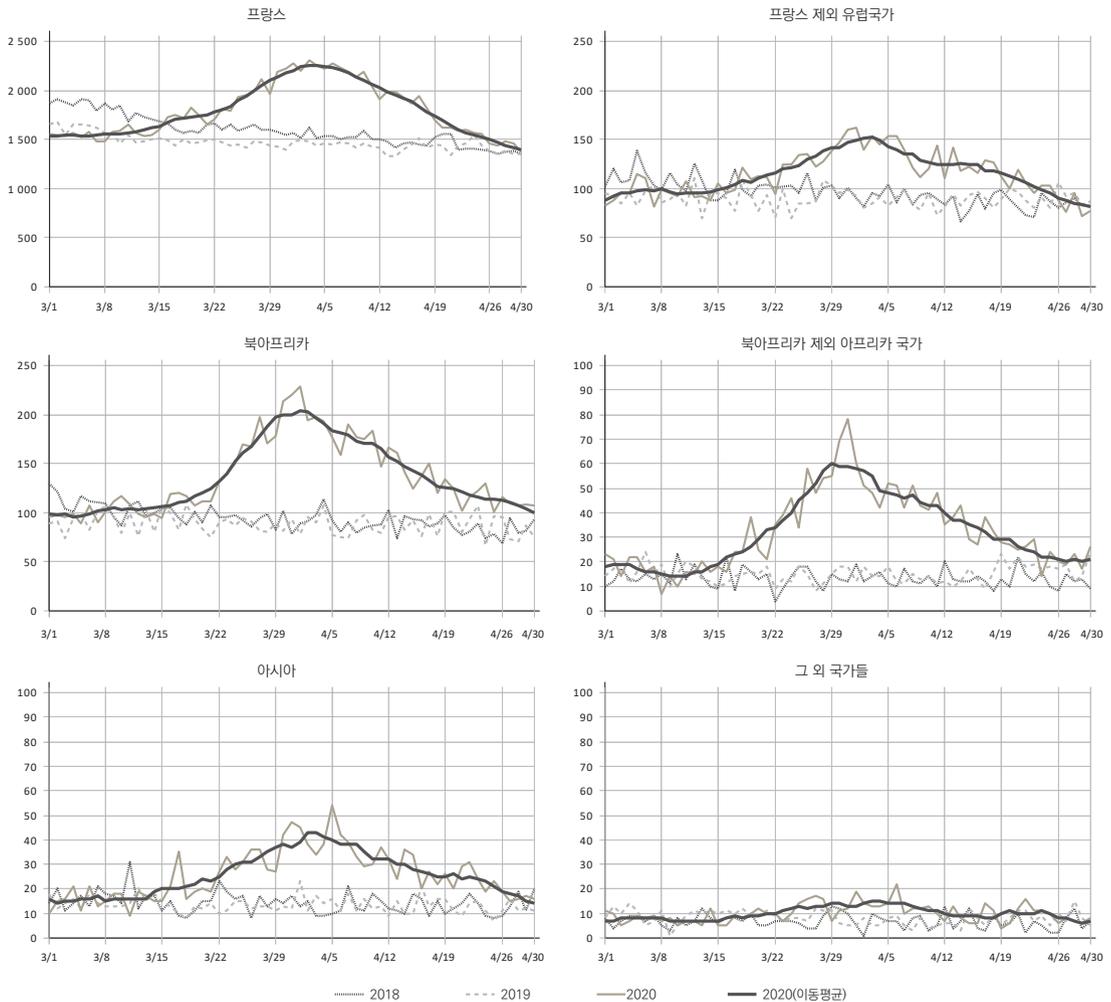
2) 본문의 「이민자의 초과사망률」장은 Papon, Sylvain Isabelle Robert-Bobée(2020), “Une hausse des décès deux fois plus forte pour les personnes nées à l'étranger que pour celles nées en France en mars-avril 2020, INSEE”를 참조하였고 「이민자의 노동시장 상황」과 「프랑스와 다른 유럽 국가의 이민자 정책」장은 OECD(2020), “What is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 OECD, Paris를 발췌 및 요약하였음을 밝힌다.

자는 25%만이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한 이민자 고유의 특성은 이들을 더 높은 위험에 빠뜨린다. 이민자들은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잘 받지 않거나 병원에 덜 가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임시 이민자들의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범위가 훨씬 적다. 더욱이 이민국의 언어가 서툰 이민자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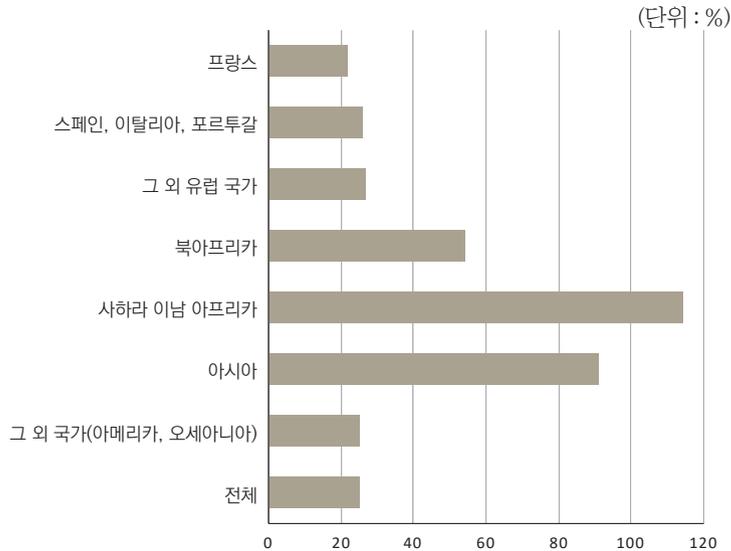
[그림 2] 프랑스의 출생국가별 2018~2020년 3~4월 일별 사망자 수 추이

(단위 : 명)



자료 : Papon, Sylvain Isabelle Robert-Bobée(2020).

[그림 3] 프랑스의 전년동기대비 2020년 3~4월 출생국가별 사망자 증가율



자료 : Papon, Sylvain Isabelle Robert-Bobée(2020).

상술한 원인들로 이민자들이 코로나19에 보다 큰 충격을 받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020년 7월에 발표된 프랑스 통계청의 사망률 자료를 살펴보면, 이민자의 사망자 수가 프랑스인의 사망자 수에 비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 참조). 2020년 3월과 4월에 집계된 사망자 수는 총 12만 9,000명으로 전년동기(10만 2,800명)대비 25% 증가하였고 이 중 외국 출생자 중 사망자의 비율은 2019년 22%에서 2020년 48%로 증가하였다. 또한 이민자의 사망자 증가율은 프랑스인 사망자 증가율(22% 증가)을 크게 웃돌았는데, 출신지역별로 살펴보면 북아프리카(54% 증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114% 증가), 아시아(91% 증가)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이들의 높은 사망률은 거주지가 조금 더 가난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 특히 파리 외곽의 일드프랑스(île-de-France) 지역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민자의 노동시장 상황

이민자들은 또한 노동시장 내에서 여러 가지 취약점을 갖고 있다. 이들은 주로 단기계약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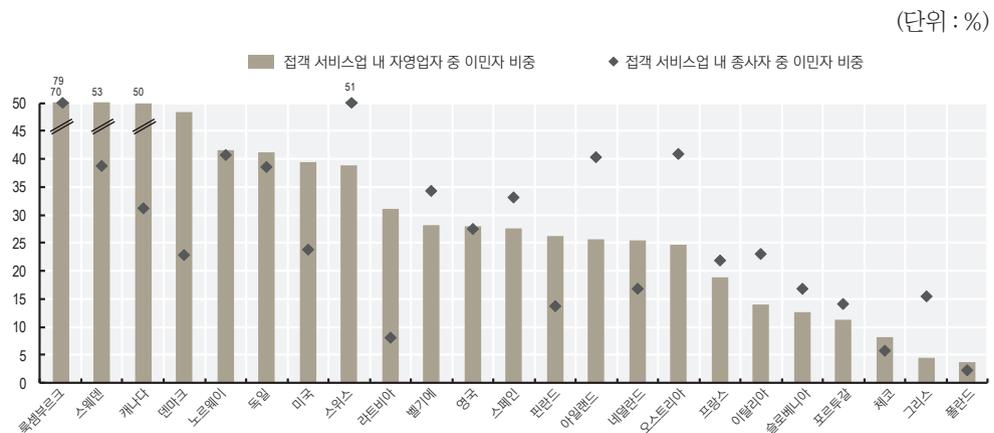
체결하며 연공서열이 낮고 경기변동에 민감한 산업군에 많이 종사한다. 게다가 노동시장의 여건이 좋지 않으면 언어문제 등을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이민자에 대한 선호가 낮아지곤 한다. 지난 2008 금융위기를 비롯한 경제위기에서 드러나 알려진 결과와는 별개로 이번 위기에는 몇 가지 요소가 추가적으로 두드러진다.

첫째, 코로나19 팬데믹은 OECD 국가들이 사상 최고의 이민자(많은 난민을 포함한) 유입을 경험한 직후에 시작되었다. 새로 도착한 이민자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취업전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팬데믹은 이민자들이 많이 종사하는 호텔산업(총고용자 중 이민자 비중이 25%), 보안 및 청소업(총고용자 중 21%) 등의 서비스 부문에 특히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독일, 룩셈부르크, 스위스 그리고 스웨덴에서는接客업 부문 총고용의 40%이상을 이민자가 차지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이보다 낮은 22% 정도를 기록했다(그림 4 참조). 임금노동자뿐만 아니라 이 부문의 자영업자들 또한 큰 타격을 받았는데, 많은 수의 이민자(룩셈부르크, 스웨덴,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의 경우 40% 이상)가 자영업에 종사한다(그림 4 참조). 프랑스에서는接客 서비스업 내 자영업자 중 이민자 비율이 약 19%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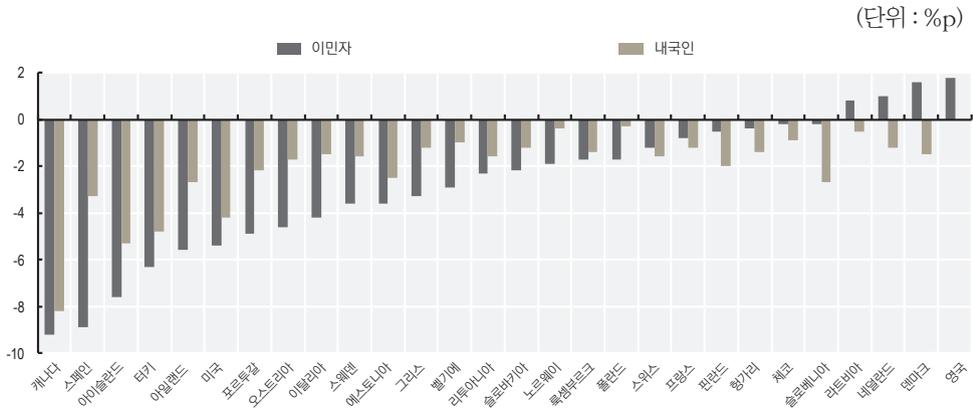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이 재봉쇄정책을 시행 혹은 고려 중인 가운데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앞으로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각 국가별로 대응책에 차이를 보이는 데다 팬

[그림 4]接客 서비스업의 총고용과 자영업자 중 이민자 비중(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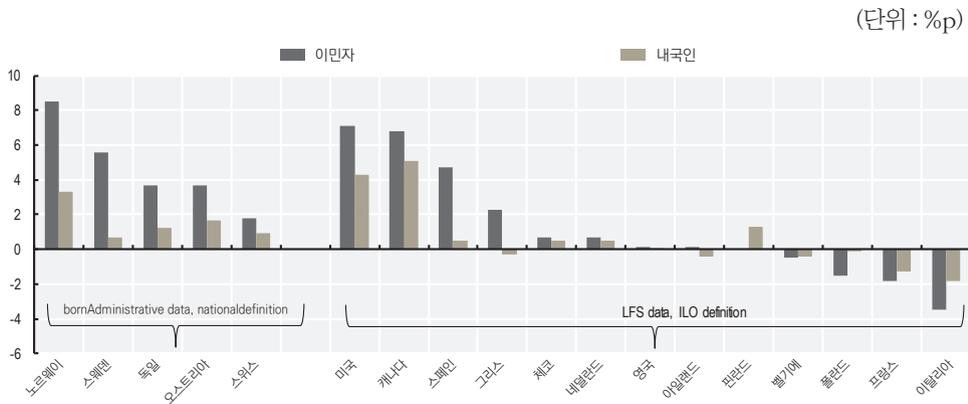
자료 : OECD(2020).

[그림 5] 내국인과 이민자의 전년동기대비 2020년 2분기 고용률 변화



자료 : OECD(2020).

[그림 6] 내국인과 이민자의 전년동기대비 2020년 중반 실업률 변화



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스웨덴, 미국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2020년 8월 실업률 변화. 독일과 스위스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2020년 6월 실업률 변화. 그 외 다른 국가들은 전년동기대비 2020년 2분기 실업률 변화.

자료 : OECD(2020).

데믹이 진행되는 동안 자료수집의 어려움 때문에 각국별 실업률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이민자에게 가중된 부정적인 결과들이 이미 실증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림 5, 6]은 2020년의 이용가능한 가장 최신의 데이터와 전년동기 사이의 고용률과 실업률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 수치들은 국가별 대응책이 상이하고 팬데믹 기간 내 자료수집과

노동통계 비교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차이를 보인다. 특히 남유럽과 아일랜드, 오스트리아의 이민자가 영향을 크게 받아서 이들 국가 내 이민자 고용률은 내국인 고용률 감소의 2배에 해당하는 4%p 이상 감소하였다. 하지만 프랑스의 경우 내국인의 고용률이 근소하게 더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는 이민자의 고용률 감소가 관찰되지 않았다. 실업률의 경우,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스웨덴, 스페인 등에서 이민자들은 적어도 4%p 높은 실업률을 보였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 내국인과 이민자 모두 실업률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감소함에 따라 실업의 효과를 흡수하였기 때문이다. 즉,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여파가 실업뿐만 아니라 저조한 경제활동 참가로 (혹은 동시) 나타난다고 볼 때, 어려운 노동시장 상황 때문에 더 이상 구직을 하지 않는 이민자와 팬데믹 이전부터 구직활동을 해왔지만 봉쇄조치로 인해 구직이 불가능해진 이민자들이 ILO에서 정의한 노동인구로부터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 프랑스와 다른 유럽 국가의 이민자 정책

아래에서는 이주 노동자에게 가중되는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된 정책들을 살펴본다.

- **실직 시의 체류 용이화**: 실직상태의 이민 노동자는 체류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가 이민자의 체류허가를 일시적으로 연장하거나 출국 의무를 면제했다. 스페인, 그리스, 체코, 독일에서는 실직상태 이민자의 체류허가를 철회하지 않고 프랑스에 거주하는 이민자의 체류는 자동적으로 일정기간 연장 혹은 갱신되었다. 또한 많은 국가가 졸업 후 구직하는 유학생들의 체류를 연장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 **지원 범위 확대**: 많은 수의 OECD 국가가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자격규정을 수정하였다.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한 보험 납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민자를 위한 특별 조치도 이에 포함되었다. 프랑스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금을 제공하는 부분실업의 자격조건을 완화하였다. 또한 많은 OECD 국가가 고용주(이민자 포함)를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의 경우 스타트업 비자나 자영

업자용 체류허가증을 소지한 이민자에 한하여 임금보조나 기업자금 대출을 제공하고 스웨덴은 이민자들의 신규 사업장에 대한 재정지원을 연장했다.

- **취업허가 범위 확대**: 취업 허가는 일반적으로 특정 부문이나 노동력에 한정되지만 팬데믹의 영향을 고려하여 몇몇 국가는 이러한 제약을 완화했다. 체코와 핀란드의 경우 실직 상태의 이민자가 고용주나 경제활동 부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이나 망명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들도 몇몇 국가에서 시행되었다. 벨기에에서는 고용주에 의해 관리되는 망명 신청자는 곧바로 일을 할 수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유학생들이 보다 많은 시간 동안 일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다.
- **해외 자격 공증 완화**: 많은 OECD 국가는 해외 의료인력의 자국 노동시장 진입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캐나다와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해외 의대 학위를 가진 자들의 임시 면허를 허용했고 벨기에, 독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는 외국 의료 종사자들의 국내 자격 공증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했다. 그리고 프랑스는 해외에서 교육받은 의료계 종사자의 건강분야 비의료직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 **계절노동 공급**: 프랑스는 농업 부문 노동력의 80% 이상을 해외 인력에 기대고 있다. 이들의 입국이 제한됨으로써 20만 명 이상의 인력 부족을 겪고 있기에 몇몇 프랑스 지역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며 난민들을 농업 부문에서 일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 맺음말

경제, 문화, 사회 그리고 인도적 차원에서 논의되던 이민문제에 대한 담론은 냉전시대의 종식, 9·11 테러 그리고 시리아 난민 사태라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 국제 안보 차원으로 확장되어 왔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19 팬데믹과 '타인'에 대한 두려움은 이민문제를 사회적 영역을 넘어서 개인 차원의 인식 문제로 확장시켰다. 이처럼 이민문제에 대한 새로운 수사법은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포용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발맞추어 이민자들의 경제적 안정과 정서적 안녕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KL**